

또 부상... 김하성 빙판길 미끄러져 수술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

5~6월 경기 복귀 예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내야수 김하성이 손가락을 다쳐 2026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애틀랜타는 19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하성이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로 수술받았다”며 “회복 기간은 4~5개월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김하성은 5~6월 정도는 꽤야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은 사실상 불발됐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지난해 한국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운데손가락을 다쳤다”고 부상 사



2024년 9월 어깨 관절외손 파열 부상을 입은 김하성. 어깨 수술을 받고 템파베이 레이스의 선발로 지난해 5월 복귀했으나 이후로도 2차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유를 설명했다.

김하성은 2025시즌에는 탬파베이 레이스와 애틀랜타에서 뛰며 타율 0.234, 홈런 5개, 17타점, 도루 6

개의 성적을 냈다.

시즌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김하성은 애틀랜타와 1년 2000만달러(약 295억원)에 재계약했다. 연합뉴스

김하성·송성문, WBC 불참 확정

내야 공백·타선 약화 현실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빅리거’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합류할 것이 유력했던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나란히 대회에 불참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19일 두 선수가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김하성은 2017년 대회를 통해 WBC에 처음 출전했고, 직전 대회인 2023년 대회에도 나섰던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다.

김하성이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낙마하면서 대표팀은 새로운 주전 유격수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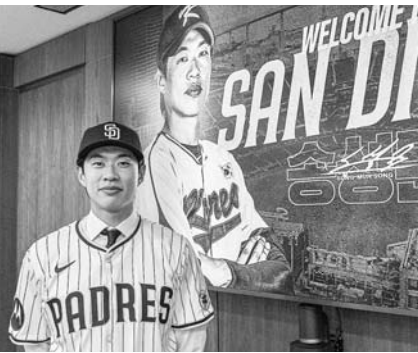
송성문의 이탈 역시 뼈아픈 손실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송성문은 WBC 1차 캠프인 사이판에 합류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옌구리(내복사군) 근육을 다쳐 회복까지 최소 4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송성문은 대표팀에서 2루와 3루, 1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전후 내야수다.

지난해 11월 일본과 치른 평가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에서는 홈런을 터트리는 등 대표팀 타선의 중심 노릇을 했다.

김하성과 송성문의 이탈로 대표팀은 공수 모두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류지현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치진과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선수 선별에 돌입했다.

서귀포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9500만원 확보

문체부 공모 사업 선정돼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직장운

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9500만원을 지원받는다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받게 된 국비는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

부(복싱·수영·육상팀) 선수들의 전지훈련 여비 등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수영부 윤준상, 이주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도전을 앞두고 있다.

위영성기자 yswi1968@ihalla.com

‘독주’ 안세영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페이스 늦추지 않을 것… 항상 부상이 걱정”

새해부터 2주 연속 금빛 스매시를 날린 ‘말미 스타’ 안세영(삼성생명)이 자신의 해인 ‘적토마의 해’를 맞이해 거침없는 질주를 예고했다.

안세영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올해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새해가 밝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한 안세영은 지난 11일 끝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18일 인도오픈도 2연패를 이루며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공식전 연속 기록을 ‘30’으로 늘렸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출전한 6개 대회에서 모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등 득수 없는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안세영은 “올해는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가 많다. 그런 대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상이 가장 걱정이다. 올 한 해는 기권 없이 모든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쉽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겪었던 체력적 한계에 대해서도 털어놴.

안세영은 지난 6일 미셸 리(캐나다·12위)와의 말레이시아오픈 첫 경기에서 다리가 불편한 듯 두드리고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는 등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우려를 샀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나서다 보니 왼쪽 다리에 무리가 왔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또 쥐가 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오히려 경기를 치를수록



19일 취재진에 답변하는 안세영. 연합뉴스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인도오픈에서는 회복된 상태로 좀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며 “제 몸상태에 맞게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번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안세영의 시선은 또 다른 대기를 향한다.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안세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단식 2연패 이적표를 세운다. 연합뉴스

돌아온 K리그 슈퍼컵

20년 만… 내달 전북 vs 대전

20년 만에 부활한 K리그 ‘슈퍼컵’이 내달 21일 전북 현대와 대전하 나시티즌의 대결로 치러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쿠판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을 K리그1 개막 일주일 전인 2월 2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슈퍼컵은 전년도 K리그1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K리그1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이 맞붙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K리그1과 코리아컵 우승팀이 같은 경우엔 K리그1 준우승팀이 대신 참가한다.

따라서 올해 K리그1 슈퍼컵에서는 지난해 K리그1과 코리아컵 ‘더블’을 달성한 전북과, K리그1 준우승팀 대전이 맞붙는다.

경기 규정은 K리그1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정규시간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황인범 ‘미수결이 골’… 팀은 패배 페에노르트 황인범이 적극적으로 볼 경합을 하고 있다. 1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에레디비시(1부리그) 페에노르트와 스파르타의 경기. 황인범이 시즌 첫 득점을 올리는 등 활약했으나 팀은 3-4로 패배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웃찾사 7:50 KBS 뉴스 930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20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키즈 펫 도감(재) 11:15 뽀빠이 동아리 스페셜 11:45 주니티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IBS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히트카드	8:20 지구 영웅 반가맨 9:20 자이언트 팬TV 9:40 서정호의 이웃집 백만장자 12:10 귀신은 몰 13:00 EBS 광생학교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10 당동당 당동당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50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뉴스 12 우리 동네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5: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한국의 법상(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캡슐세이브(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어린이 동물디버(재) 17:00 리조맨 3 17:15 그라운드크루 토토 17:3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한글공자 이야기(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엄마를 부탁해(재)	12:00 SBS 12 뉴스 12:45 히트레이서 13:00 뉴데이(재) 14:00 뉴스브리핑 15:00 말하는 몸(재) 16:00 화점기행 17:00 SBS 오뉴스 17:15 JIBS 저녁 뉴스 17:30 구라기 탐구생활(재)	KCTV 9:00 KCTV 9시뉴스 9:30 인터넷 제주공감 10:00 특목TV특대 11:30 방송관련초 경연대회 12:00 코리아 시즌 2 13:20 살아있네 살아있어 15:30 도깨비 16:00 공원에 반하다 17:10 빈과 후 방송반 18:00 캠퍼지 19:00 KCTV 종합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일일드라마 마리와 발남 아빠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KBS 뉴스타임W 23:30 영상앨범 산(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20:30 설립병사의 비밀 21:45 스토리킹 건 22:45 아이 러브 스포츠 23:10 스튜디오 K	18:05 트로트 클라스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판사 이한영(재) 22:20 PD수첩 23:20 100분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한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토크나면 22:40 무무X자자 우발리디오	제주CBS FM 93.3MHz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먼가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지환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0일	김종상 지단(組)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여행을 자제하고 흥을 보지 마라.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60년 쪼든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날.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하니 섬세함이 필요. 84년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있는 날이니 자중하라.		42년 직장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 54년 문서상, 계약문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다름, 소송전에서는 불리하니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 78년 작은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여행에 주의하라. 90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히려 미루지 말 것.
	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갈라.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철저히 세워라.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 나 이동은 불리하다.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 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		43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55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하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67년 모임이 있으면 차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79년 직업에 변화를 피하려 하거나 인기몰이로 변화를 주려 한다. 91년 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 과음절제.
	38년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 62년 배달사고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6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역부족.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 동료간 논쟁을 조심해야. 68년 관재구설수가 두려우니 미연에 예방하라. 부부애정 적신호. 80년 시원스런 소식을 접하고 만나는 이가 귀인이다. 92년 형제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용돈이 생긴다.
	39년 분실이나 물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한다. 51년 과도한 재물이 화를 부르는 정도를 지켜라. 63년 뜻하지 않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된다. 예의와 접대는 존경을 얻는다. 75년 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성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7년 정보수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5년 나눔을 주게 되거나 봉사할 일이 기다린다. 57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관련 좋은 소식이나 일이 있다. 69년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니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 81년 새로운 교제가 진행된다. 나와 편안하게 대화가 통한다. 93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든 하고 싶다.
	40년 일에 성과가 있으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 52년 천지나 벗을 만나고 전문가를 접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64년 나태함과 게으름이 후회를 낳으며 부부간 다툼이 된다. 76년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88년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직업 또는 급전 문제가 더 앞선다.		46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욕심을 내지 말 것. 58년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후회를 만드는 격이니 나보다 상대를 중히 여김이 필요. 70년 업무과중이나 뒷사람의 충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 94년 우정에 불화의 골이 깊어지니 신속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필요.
	41년 변동 지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53년 사사로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65년 자녀문제가 가중될까 예상된다. 77년 변동이나 변화가 필요하며 급전 지출이 발생한다. 89년 이별에 아쉬움이 상처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7년 하던 일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라. 무리수는 후회를 부른다. 59년 상가나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71년 성과가 있고 이익이 현실로 나타난다. 83년 취업이나 직업변동이 오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 95년 부모님 건강이 불리하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안이 된다.